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규칙>: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54호 현대불교 2007년 11월 21일(음력 10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19

# 한마음이 돼야 한마음의 열쇠가 나옵니다!

항상 한자리에 같이 하면서도 한 달 동안에 몇 번 못 본 분들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가끔 빈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나 미물 사는 거나, 사람들은 차원이 높아서 입신을 해도 하나만 낳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차원까지 이르지 못한 미물의 집승들은 많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간도 한생각을 잘못 해서 어떻게 행동이 돌아가고, 어떠한 인연에 따라서 삶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그런 일들을 검토해 볼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별레의 세계든 짐승들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또 우주의 모든 섭리든 그 살림살이가 다 똑같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살림살이가 즉, 과학이며 천체물리학이며 또는 진리며 도며 불교라고요. 조그마한 데다 신경쓰지 마세요. 기독교다 카톨릭교다 불교다 이런 이름에 꼬달리지 마시고, 어느 종교라는 것을 갈라놓고 꼬달리지 마세요. 사람은,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생명들은 다 생명이 있겠지요. 불성은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걸 알게 되고 진화되고 창조되 겠죠.

오늘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종합해서 본다면 그런 이치가 한두 건이 아닌데 옛날에 어느 한 동네에 만석꾼이 살았었습니다. 이젠 어디까지나 비유인데 진실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거짓이 아니니깐요. 만석꾼이 살았는데, 그 양반은 자기집 노비들을, 종들을 너무도 학대를 했습니다. 동네 일판에서 만석꾼이라든가 마그 이 웃은 다 자기의 노비로서 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로 비유할 뿐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 한 동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노비들을 너무 잔인하게 부렸습니다. 돈만 알고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저 먹는 거라도 넉넉히 주고서 들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고프게 먹으며, 농사를 지어주는데 피와 땀이 흐르면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와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왜 더 들어오지 않느냐?" 하고 두 부부를 묶어놓곤 때리고 하니 그건 뭐, 알아가면서 그 고통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매를 맞고도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 나무를 안 해오면 주인한테 또 얻어맞을 테니까 고만 나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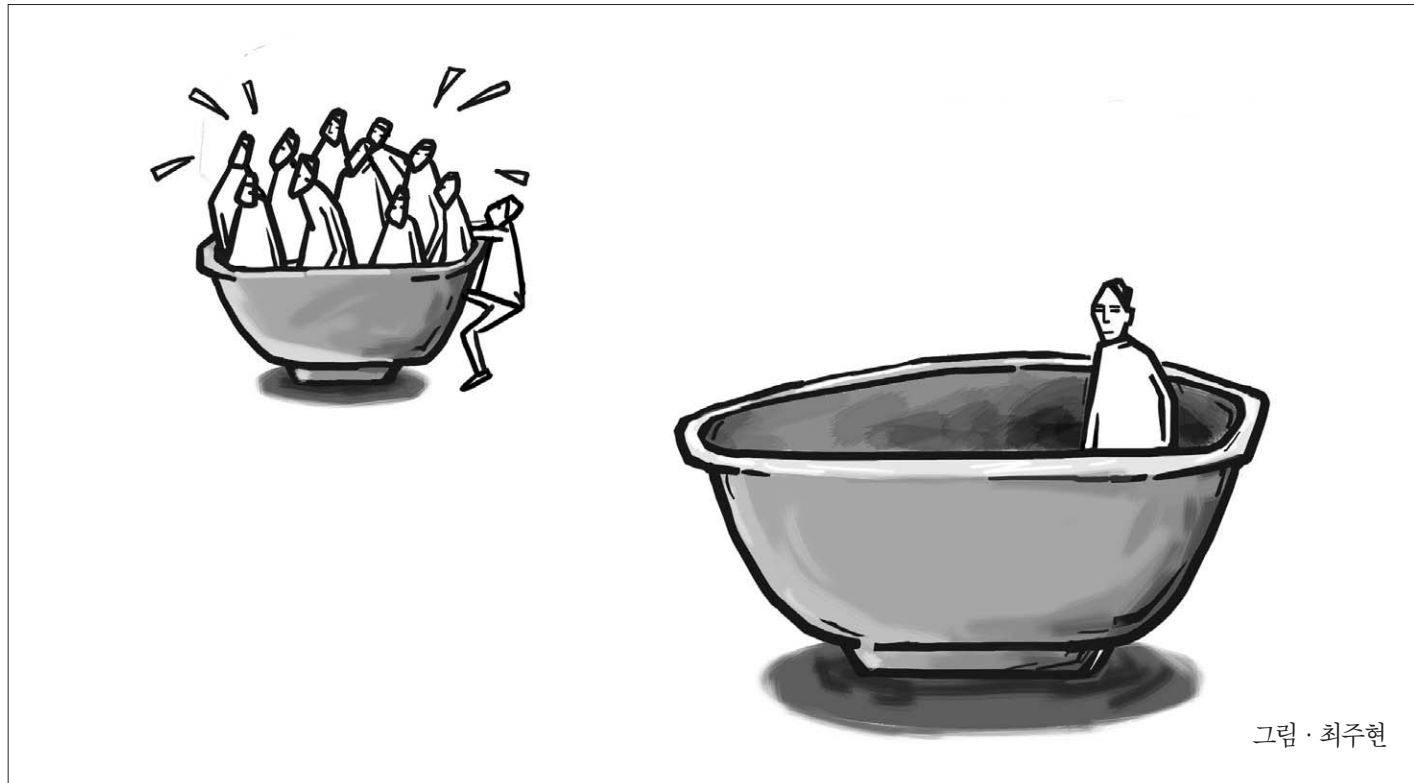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하러 갔죠. 아파도.

나무를 한 집 해서 지고 내려오다가 그 매맞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쉬면서 울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젊은 스님이 다가오더니 "그 왜 그렇게 울고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이가 하는 소리가 "참, 무슨 죄를 많이 짓고 낯던지 이렇게 노비로서 태어나서 그저 걸핏하면 때려서 건강치 못한 몸으로 나무도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젊은 스님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 스님이 하는 소리가 "여보시오,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몸뚱이 태어나서 얼마나 가리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어차피 노비로 태어난 거 그대로 그대로 마음을 안유시키면서 조금만 더 살면 죽을 텐데 뭘 그러시오." 하고 가거든요.

그 소리 들으니깐 너무나 더 슬렸습니다. 한 세월을 노비로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부모도 불쌍하지마는 자기의 동생들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했더라는 얘깁니다. 동생이 있어도 이웃에 살면서 또 노비 노릇을 하니 말입니다. 응! 자기 자식을 낳았어도 또 노비 노릇을

해야 하니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지금같이 먹고 죽을 약이라도 있으면 그냥 몽땅 다 먹고 죽을 텐데 말입니다. 아, 그때야 양젓물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러나 양젓물도 맘대로 못 먹고 죽습니다. 종이 때때로. 남의 노비인데 만약에 자살했다면 그냥 들니까, 그 가죽을.

그래서 더욱더 슬퍼서 울다가 할 수 없이 눈물을 씻고 다시 나뭇짐을 지고 내려왔습니다. 지고서 참 근근이 내려왔는데 그 맛은 독도 있고 하니깐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죠. 앓다가 죽어서는 양반집 주인의 손자로 태어나고, 또 그 양반은 죽어서 그 노비의 손자로 태어났더라 말입니다. 아마 누구가가 이렇게 태어나서 같이 산 대도 모를 겁니다.

내가 그런 얘기 잘 하죠. 구더기는 자기가 파리가 된 줄 모르고 파리는 구더기였다는 걸 모른다고요. 매미는 또 굼벵이라는 걸 모르고 굼벵이도 매미라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니, 정말로 자기 부모가 이 세상에 자기와 연결이 돼서 심대 중순 십일대 중순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통히 모르거든요. 당대에 나올 수도 있죠. 그

래서 나쁜 것에도 착을 두지 말라는 얘깁니다. 좋은 것도 착을 두지 말고, 이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잊어버려서 바뀌었습니다. 사연은 많지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잊어버려서 양반은 종이 되고 종은 양반이 되었죠. 양반이 종 노릇을 하러니까 양반으로 살던 습이 남아서 아상이 많아, 아무리 종놈으로 태어났을지언정 이젠 아만이 머리끝까지 있던 얘깁니다. 그러나 종으로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 한 술 더 퍼서 매를 더 맞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던 사람은 또 종의 습이 있어가지고 항상 자기가 높은 줄 몰라, 항상 눈물이 자고 노비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 남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행님들도 있고 아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나? 양반 상놈은 나라에서 정한 법이요, 종이라는 건 때려죽여도 살인도 아니었죠.

종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난 책을 하니까 물매를 맞고 지내다가 어느 날 그만 헛간에 불이 났단 말입니다. 불이 났는데 그 양반 노비는 소를 끌어내려다가 그만 불에 데었던 말입니다. 소도 데고 자기도 데었는데 그거를 다 끄고 보니까 서

너 군데나 데었던 말입니다. 소도 엉덩이가 데어가지곤 그냥 흘려 버리고 그랬으니 주인집에서는 "소도 돌볼 겸 외양간에서 같이 자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하고 서로 돌이 공공대고 앓고 또 소는 소대로 송아지들을 두어 마리 낳아가고선 새끼들도 있는데 어머니 엉덩이가 그렇게 데었으니 그냥 앉기만 해도 아프거든요. 또 지푸라기가 달으면 "음매" 하고 소릴 지르면서 울어요.

그렇게 지낸 지 며칠 후에 어느 스님이 한 번 오셨어요. 스님이 오셨는데 시주를 하러니까 그 양반의 집에서는 쌀 한 뭇가다가 부으면서, 우린 만석꾼인데 만오천 석이 되게 해달라고 스님한테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돌아서다가 외양간을 보시고는 그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생 양반 노비는 말입니다. 이생에서는 종이죠. 종이 하는 소리가 "무슨 팔자가 이래서 종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 나는 나를 낳은 우리 부모도 죽이고 싶도록 원망스럽고, 자기 주인 양반도 어느 때든지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싶다." 그러거든요. 전생에 양반이었을 때 성질이 그대로 남아서 말입니다. 전자의 각본대로 나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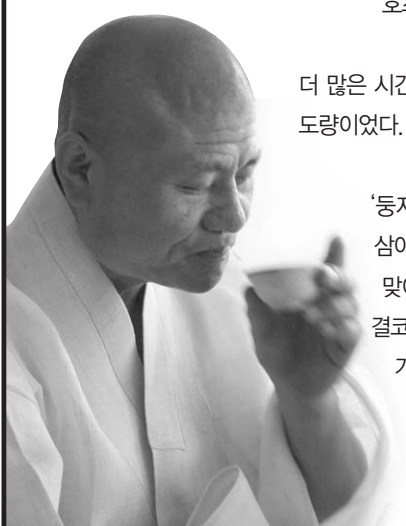
아, 그렇게 성질을 피우니까 "허허!" 웃으면서 스님이 하는 소립니다. "내가 여기 들어온 것은 자네 때문에 들어온 것만은 아닐세. 저 소로 인해서 들어왔네. 소의 얘기는 이렇다네. 저 묘향산 상원사에 어느 행자로 들어와서 살던 스님일세. 그러나 수좌(首座)가 왜가지고 부처님 앞에 놓는 돈만 그저 굶어가고 여자를 좋아했어.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물레 산을 내려가서 어린애를 낳아 놓고 살지도 못하고는 그냥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원한을 사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습리의 본분을 지키지 못해서 소가 됐네." 그러거든요.

"그래, 저저 보게. 송아지를 낳아놓고도 엉덩이가 아파서 저렇게 앉지도 못하면서 꾸부정하게 젖을 먹고 있는 걸 좀 보게. 얼마나 고통인가? 그래도 인해 울면서 뒤우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주일만 있으면 데려가려네." 하거든요. 또 "자네는, 이 소의 인연으로 인해서, 소를 이렇게 극진히, 자기의 아픔과 같이 잘 거두기 때문에 자네도 인연 따라서 앞으로 법도를 닦아서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라네." 했거든요.

20면으로 계속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효종 스님의 가슴속에 묻은 남겨진 사연들...

## 동지속의 대화



호스피스 활동과 간병인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는 효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그리고 함께 간병인 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도반이었다. '동지속의 대화'는 바로 효종 스님이 병원을 도량 삼아 수행하며 이어온 인연들의 이야기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극적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진 이야기는 감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동시에 전해준다.

- 현대불교신문 -



신국판 / 10,000원

현대불교 (051) 244-1251 (02) 2198-5151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문화 포교지

## 월간 『불교와 문화』

10  
2007



특집 | 불교 박물관, 문화의 중심에서 서다  
지역 문화를 살찌우는 문화 포교의 청명, 불교 박물관을 문화적으로 조명한다.

별책 부록 | 전국 불교 박물관 가이드  
전국 곳곳의 정보 박물관과 테마 전문 박물관 등 박물관 40여 곳에 대한 소장 유물 목록 및 관람 요강, 약도 등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리브레티 | 사랑, 그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  
사랑이란 이름의 실천 수행 2자기를 찾아야 비로소 배우자의 마음이 보인다  
소설가 정찬주와 떠나는 명상여행 | 인도에서 본 불상속 9(죽원전법상)  
종범 스님의 재가불자를 위한 기초교리(경전편) | 범화경,  
생활불교 가이드 | 보름 포살 법회란 무엇인가?  
연방장에 피어내는 연꽃 | 부산 금련사  
문태준 시인의 자유포토에세이 | 이별에게  
술길 10 | 화성 용릉, 건릉의 숲  
테마가 있는 사람, 그곳에 가고 싶다 | 온갖산 수종사  
집중인터뷰 | 방재자 화백  
드라마작가 정형수가 추억하는 내 기억속의 절반  
잊혀져가는 사찰음식을 찾아서 | 공주 흥복사 도토리 아재 수재비  
항기로운 사람들 | 학습지도 자원봉사 불자·부처님께 사신 공양 올리는 불자  
도교통신 | 일본의 '외바사비'  
법현 스님의 숫자로 보는 불교 | 여덟 가지 특별한 것을 갖춘 아난  
2007 테마로 읽는 좋은 책 | 불교와 박물관

월간 『불교와 문화』 1년 구독료 30,000원(1년 3,000원) 구독문의: 02-706-1570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